

『예술가란 무엇인가』

최 현 주*

베레나 크리거(verena Krieger)지음, 조이한, 김정근 옮김. 출판 휴머니스트

어릴적부터 무용을 전공해 창작을 해본 무용가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가란 무엇인가? 예술가는 어떻게 예술가가 되는 것일까? 예술가의 인격과 생애, 심리구조는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이런 등등의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을 것이고, 이러한 고민을 통해 예술가란 '이것이다'라는 분명한 정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들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답을 함께 고민해 보는 책이 베레나 크리거(verena Krieger)의 『예술가란 무엇인가』이다.

이 책의 첫 장에는 “이 책은 예술가라는 존재를 다양한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미술책들과 분명하게 다르다. 또한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미술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우리의 미술적 소양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안성맞춤이다”라고 쓰여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전반적인 예술로 다가서기보다 다분히 미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미술을 통해, 미술사를 통해 예술가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통섭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베레나 크리거(verena Krieger)는 독일 보쿰대학에서 미술사, 철학, 역사를 전공하고 2008년부터 빈 실용미술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근대와 현대미술, 러시아 미술사, 미술가와 미술가의 창조성에 관한 개념들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번역을 맡은 조이한은 심리학을 전공하고 독일로 유학하여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에서 미술사와 젠더학을 공부하였고, 함께 번역을 한 김정근은 연세대학교에서 독문학을 전공, 독일로 유학하여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독문학과 연극학을 공부했으며 귀국 후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갖고 연구와 번역을 하고 있다. 저자와 옮긴이 모두 하나의 전공만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한 영역을 확대하거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그와 관련된 다른 영역의 공부를 함께 한 것이 이채롭다.

예전에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융·복합 시대를

* 무용학 박사, 한국무용예술학회 이사,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dancelove3@hanmail.net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체성은 독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만을 잘 하는 것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의 한 가운데에 와있다. 정체성을 버리고 그와 관련된 영역의 확장이나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을 연구하여 연결시키고 응용을 위해 탐구해 보는 것, 이것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위의 저자와 옮긴이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예전에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융·복합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체성은 독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만을 잘 하는 것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의 한 가운데에 와있다. 정체성을 버리고 그와 관련된 영역의 확장이나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을 연구하여 연결시키고 응용을 위해 탐구해 보는 것, 이것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위의 저자와 옮긴이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무용가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베레나 크리거(verena Krieger)는 미술사나 미술가들을 통하여 서로 얽혀 있는 다양한 주제를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무용을 하며 창작의 고통과 의미를 찾는 무용가들에게 꼭 읽고 넘어가야 할 필독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술가란 무엇인가?’의 근원적인 고민들 뒤에는 곧 ‘창조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뒤따른다. 예술 작품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 창조성이란 무엇인가? 창조성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창조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이 이어진다.

베레나 크리거(verena Krieger)는 서문에서

“예술가라는 존재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많이 변했다. 오늘날 우리가 창조적인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정신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창조성은 예술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르네상스 시대에 수용되어 재형성되었다. 또한 많은 생각이 초기 낭만주의 시대에 생겨나기도 했다. 게다가 어떤 것들은 이미 ‘고전적 현대 미술(아방가르드적인 미술이 다양하게 탄생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미술을 일컫는다)’작품이 만들어졌던 20세기 초반에 생성되었다. 예술가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매혹적으로 형성된 것은 이시기였다. 오래전부터 예술가는 남 녀를 불문하고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변화시켰던 예술가적 특성에 경쟁하듯이 몰두했다”

라고 말한다. 이 책을 잡아볼만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 책의 구성적인 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예술가란 무엇인가』는 총 8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제 1장 예술가, 수공업자에서 창조자로 지위가 높아진다.

여기에서는 예전의 화가나 건축가 시인들이 르네상스시대 때부터 명성을 얻으려는 노력, 수공업에서 정신적 활동으로의 가치상승, 천부적 재능과 창조적 정신, 모방에서 독창성으로, 예술가의 영감, 신과 비슷한 창조자가 된 예술가라는 5가지의 소재로 접근하고 있다.

제 2장 예술가, 천재로 불린다.

2장에서는 현대적 천재 개념의 발전, 아카데미 예술가와 아카데미를 반대하는 태도, 세대 갈등, 현대적인 예술가의 정형화된 특징(내면성, 주변부 인간이 지닌 특성, 고통), 천재의 승리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www.kci.go.kr

제 3장 예술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이 장에서는 예술가들의 유형을 흥미롭게 여러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자유의 왕국으로서 예술, 아방가르드의 개념, 정치가이면서 예술가인 세 가지 유형, 혁명가로서의 예술가, 파리의 초현실주의자들,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예술가, 구원자 요제프 보이스라는 소재목으로 유형파악을 통해 예술가들이 세상을 접근하는 다각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제 4장 천재, 멜랑콜리 그리고 광기

개인적으로는 제 4장이 제일 빨리 책장이 넘어갔던 것 같다.

우수에 담긴 사람이 지닌 정신력, 예술가의 멜랑콜리, 영혼의 고통과 예술가의 투시력, 멜랑콜리에서 광기로, 쇼펜하우어와 그의 영향, 한스 프린츠 호른과 정신분열증이 지닌 형상력,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조울증과 창조성으로 나누어 천재들의 멜랑콜리와 광기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제 5장 새로운 창조성의 발견, 그 원천에 대한 갈망

창조성의 열정, 창조력의 원초적인 상태, 심리분석의 창조성 이론, 모든 인간은 예술가이다, 예술의 주역이 된 무의식, 길퍼드와 심리적 창조성 연구로 창조에 관한 이론과 인간의 갈망을 이야기한다.

제 6장 예술가의 남성성 혹은 여성적 창조성에 대한 질문

천재적인 성과 재현적인 성, 창조성과 성, 여성예술가들의 특징에 대한 생각, 메러 호펜하임의 양성적 창조성 이론, 현재의 여성미술가들이 지닌 여러 가지 전략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예술가들에게도 여성과 남성의 대립적 구도와 이를 바꾸려는 예술적 시도, ‘여성적인 미학’에 대한 관점 등을 논한다.

제 7장 반예술가, 거부적 전략

여기에서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서의 우연, 레디메이드의 개념, 파괴행위로서의 창조성, 사라진 저자, 그림 그리는 기계, 독창성을 부정함이라는 제목으로 1950년대 후반의 예술가들의 여러단계의 자신과 예술의 부정과 부정하려는 시도등을 그리며 독창적 세계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제 8장 새로운 예술가, 이승으로 돌아온 유명같은 존재

진정한 미술가란 무엇인가?, 비평가와 큐레이터,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미술가, 포기할 수 없는 미술가의 지위를 다루며 20세기의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새로운 극단적 정의의 생각과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 한편의 책을 읽고 난 후 ‘진정한 미술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 다시금 빠져들며 그 해답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예술가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유추되는 것은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얻기까지 그 자유 뒤에 숨겨진 고통과 번민, 창조, 새로움에 대한 갈망 등을 여러 예술가들의 사례로 알게 될 것이다.

웁긴이의 말에서 가장 와 닿았던 대목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닮았으면 하고 바라는 예술가의 모습이 형성되기까지는 매우 긴 역사적 시간이 필요했다. 이 책은 그 기나긴 변화과정을 세세히 보여주면서 오늘날 예술가들의 다라진 위상과 그들이 당면한 딜레마까지 짚어낸다”

는 말 이었다.

다분히 미술사위주로 접근하고 있지만 저자는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오늘날 예술가의 위상과 예술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읽으며 어렵고 힘든 사상과 이해하기 힘든 사조들과 만날 때마다 나에게 시간을 넉넉히 주기로 하고 천천히 또 느긋한 마음으로 이 책을 대했다.

미술사를 통해 춤을 추고 춤을 연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융합(Convergence)적 관점, 이를 통해 다분히 많은 유기적인 관계를 찾고 소통(Communication)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천재적이고 고통 속에 살다간 예술가들의 끝없는 시도를 위안삼아 꾸준히 창작(Creative)하는 것, 이 세 가지 융합, 소통, 창조 3C를 통해 더욱 복잡하고 외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